"올 여름휴가는 집콕"… 카드사, 홈캉스족 맞춤 마케팅 봇물

거리두기 4단계로 외출 어려워져
야외 위주 행사 사실상 중단 예상
OTT, 해외 직구 등 프로모션 집중

코로나19 재확산에 카드사의 여름철 마케팅이 '야외'에서 '실내'로 선회하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면서 사실상 국내 여행·레저·숙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호텔의 경우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고 객실 이용률을 초과하는 예약은 취소 처리된다. 사적 모임을 자제하라는 정부 권고에 따라 국내에서의 이동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집콕족·홈캉스족' 공략을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 직구 등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이달 말까지 OTT 플랫폼 웨이브 정기결제 이용권을 첫 결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회차 이용금액에서 3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단, 행사기간 이전에 삼성카드로 웨이브 이용권을 결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 행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GS25에서 7월 매주 토요일과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 경기가 있는 날 맥주 8캔을 구매하면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CU에서는 2+1 혜택 및 추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장기간 해외 여행길이 막힌 쇼핑객을 위해 온라인 직구를 지원하기도 한다. 하나카드는 뉴욕의 버그 도프굿맨, 미국의 메이시스와 니마마커스 등 해외 유명 백화점 온라인몰에서 하나카드로 결제하면 15% 하나머니 캐시백을 제공한다.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무료 직구 보험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라이프샵 내 해외직구 페이지를 경유해 직구몰을 이용한 회원에게 최대 10달러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결제금액이 50달러 이상인 경우 최대 5달러까지 결제금액의 5%를 추가 할인해 준다.

면세점이 그리운 소비자들을 위한 명품 구매 프로모션도 등장했다. 하나카드는 온라인 명품 쇼핑 플랫폼 트렌비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구매금액별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 결제 시 각각 ▲1만5000원 ▲3만원 ▲4만50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소비자를 위해 가전제품 구매도 지원한다. 롯데카드는 이달 말까지 롯데하이마트 온라인몰에서 일부 상품에 한해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 중 매주 금·토·일요일 전국 롯데백화점에서 삼성전자·LG전자의 일부 제품을 결제하면 상품권도 증정한다.

국민카드는 롯데백화점에서 삼성·LG·위니아딤채의 여름 가전을 단일 브랜드로 구매하면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다. 가격별로 100만·200만·300만·500만 원에 각각 8만·16만·24만·40만원의 롯데상품권을 준다. 단일 브랜드로 100만원 이상 결제하면 현장에서 3% 할인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한편 올해 들어 뚜렷해지던 소비 개선 흐름에 제동이 걸리면서 하반기 카드사 실적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분기 카드 승인액은 22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지만 최근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실적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으로 인해 올 여름 야외활동을 위주로 한 여름휴가 프로모션은 사실상 모두 중단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끝나도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소완 수습기자 think@metroseoul.co.kr

〈카드사별 여름 휴가철 프로모션〉

지원혜택	카드사	내용
OTT	삼성카드	웨이브 첫 정기결제 고객 대상 2회차 이용금액에서 3천원 캐시백
해외직구 및 명품	하나카드	해외 유명 백화점 온라인몰에서 하나카드로 결제시 15% 하나머니 캐시백
	KB국민카드	라이프샵 내 해외직구 페이지를 경유, 직구몰을 이용한 회원에최대 10달러 즉시 할인
가전제품	하나카드	트렌비 구매금액별로 캐시백 혜택
	롯데카드	매주 금·토·일요일 전국 롯데백화점에서 삼성전자·LG전자의일부 제품 결제시 상품권 증정
	KB국민카드	롯데백화점에서 특정 브랜드 가전 단일 구매시 상품권 증정

/각 카드사별 취합

고금리 특판 쏟아내는 저축銀 "실탄 확보"

이달 초부터 잇따라 출시 '이례적'
시중 대출 수요 감당 위한 자금 마련

저축은행들이 앞다퉈 예·적금 금리를 높이거나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고 있다. 특히 통상 연말에 급증하던 고금리 특판이 7월 초부터 잇따라 출시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란 분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정기예금 금리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연 최대 2.3%로 올렸다. 상상인저축은행은 '뱅뱅뱅 정기예금' 금리를 기존 연 1.7%에서 연 2.21%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SBI저축은행도 지난달 정기 예금상품 금리를 연 1.6%에서 1.8%로 0.2%포인트 높였다. JT친애저축은행은 이달 들어 최고 금리가 연 2.05%인 비대면 정기예금 특별판매를 시작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연 2.25%의 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했다.

고금리 특판 상품도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월 불입금 한도는 10만원대지만 조건만 충족하면 10% 금리를 내주는 상품도 속속 나타났다. 고려·평택·머스트삼일·키움예스저축은행 등의 오픈뱅킹 정기적금 금리는 연 10%다. 이외에도 DB저축은행 등이 연 6.9% 고금리 상품을 내놨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저축은행의 정기적금 평균 금리는 12개월 만기 기준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은행 정기적금 평균 금리(1.91%)보다 0.48%포인트 높은 수치다.

저축은행으로 향하는 자금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저축은행의 예금 잔액 평잔은 85조1681억원으로 67조9382억원이던 전년 동월 대비 약 17조원 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저축은행이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고 수신 잔액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만연하던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시중 대출수요를 급증시켜 저축은행업계가 실탄 확보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하반기 예정된 대형 공모주 청약 시즌에 대비해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 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권소완 수습기자

〈저축은행별 정기 예적금 이자율〉 (2021.7.14 기준)

웰컴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연 최대 2.3%
상상인저축은행	'뱅뱅뱅 정기예금' 금리 연 2.21%
SBI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연 1.8%
JT친애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연 2.05%
우리금융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 금리 연 2.25%
고려·평택 머스트삼일·키움예스저축은행	오픈뱅킹 정기적금 금리 연 10% (조건 충족 시, 월 납입 10만원 한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

하나銀, 금감원 라임펀드 배상 권고 수용

기본 배상비율 55% 결정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 징계 수위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나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의 라임 국내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수용하고, 배상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했다며 55%의 기본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손해배상비율은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포인트(p)를 공통 가산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고려해 배상절차를 진행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국민은행, '두근두근여행적금' 출시

가입자에 노랑풍선 상품 할인 쿠폰

KB국민은행은 여행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KB두근두근여행적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KB두근두근여행적금은 매월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하는 정액적립식 적금상품으로 가입기간은 6개월이다.

기본 이율 연 0.6%에 더해 ▲여행친구 우대이율 최고 연 0.6%포인트 ▲오픈뱅킹 우대이율 연 0.3%포인트 ▲자동이체 우대이율 연 0.1%포인트 등을 포함해 최고 연1.6% 이자율을 제공한다. 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 금리는 연 1.6%다.

또 여행 업체 노랑풍선과 제휴를 통해 적금 1회차를 납입한 가입자 전원에게 노랑풍선 패키지여행 1만원 할인 쿠폰을 증정하며, 적금 4회차 납입 시 노랑풍선 할인 쿠폰팩 4종(패키지여행 4%·자유여행 호텔 1만원·항공 5000원·액티비티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노랑풍선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쿠폰번호를 등록 후 국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항공 쿠폰은 해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여행 테마 상품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적금에 신규 가입하고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리모와 여행용 캐리어 ▲고프로 히어로9 ▲여행 지원금 10만 포인트리 등 여행에 유익한 경품을 제공한다. 더불어 여행친구 우대 이율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쿠폰 1매를 증정한다.

/이영석 기자 ysl@

NH농협銀, 창립 60주년 디지털 상품 이벤트

추첨 통해 햅쌀 등 제공

NH농협은행은 전국 농·축협과 함께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함께하는 100년 농협, 디지털로 다함께!'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농협의 디지털 채널(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 NH모바일브랜치, NH콕뱅크)에서 이벤트 대상 디지털 상품 14종(농협은행 7종, 농·축협 7종) 중 1종 이상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5900명을 추첨해 햅쌀(3000명), 제철과일(1400명), 가공농축산물(1500명)을 제공한다.

농협은행 이벤트 상품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형IRP ▲다통화월복리외화적립예금 ▲올원5늘도적금 ▲NH직장인월복리적금 ▲NH페이모아통장 ▲사업잘되는NH통장 등이 있다.

농·축협 이벤트 상품으로는 ▲주머니적금 ▲주머니정기예금 ▲주머니통장 ▲주머니금리쇼핑예금 ▲콕!BASIC자유적금 ▲콕!BASIC예금 ▲콕!BASIC통장 등이 있다.

/권소완 수습기자